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OXFORD INHERITANCE

가제 : 옥스포드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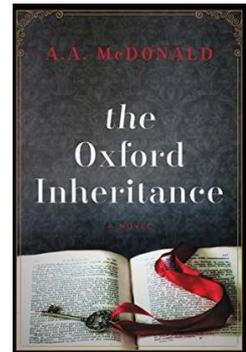
저자 : Ann A. McDonald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6년 2월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오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옥스포드, 그 속에 숨겨진 어두운 힘과 살인, 소름 끼치는 진실
긴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옥스포드 대학교로 달려온 카산드라. 그토록 바라던 옥스
포드 대학생이 된 첫 날은 그렇게 허겁지겁 정신 없이 시작됐다. 아름다운 캠퍼스에 감탄할 새도
없이, 이미 입학식이 한창인 강당에 들어서자 한껏 들뜬 새내기들이 가득하다. 입학 첫날의 긴장
과 즐거움으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학생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다들 똑같은 검은 색 가
운을 걸치고 있지만, 카산드라에게는 대부분의 신입생들보다 나이가 네다섯 살 더 많은 것 말고
도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가운 아래에는 숨긴 남모를 비밀, 옥스포드에 입학한
진짜 이유, 그리고 공들여 세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한 해 동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
다.

카산드라가 이 유서 깊은 학교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엄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돈, 살인, 그리고 흑마술까지 관련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상한 이야기, 그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미국에서 자란 카산드라는 엄마가 옥스포드에 다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 건너 카산드라 앞으로 이상한 소포가 하나 도착하고, 그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단체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향해 환히 웃는 순간 카산드라는 그 모든 계획을 떠올리며, 오로
지 그 목표를 위해 마침내 이 유서 깊은 대학교의 문을 열었다는 생각에 벅차 오르는 마음을 느
낀다. 이어진 학장과의 티타임 시간.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는 형식과 절차에도 '옥스포드'
라는 이름만으로 이미 차별화된 그들만의 독특한 세상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고유한 규칙, 문화,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까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작은 국가와 같은 대학. 유수의 석학들

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앞에 놓고 토론을 벌이던 롤리 칼리지에서 카산드라는 신입생들을 위해 마련된 짙막한 학교 투어에도 참여한다. 식당에서 만난 학장은 자연스럽게 카산드라에게 어떻게 입학하게 됐냐고 묻고, 카산드라는 오랫동안 연습한 대답을 줄줄 읊어댄다. 부모님이 잉글랜드로 여행을 오셨다가 옥스포드에 반하셨고, 자신을 낳자마자 오직 이곳에 입학하기만을 바라며 학교 사진까지 침대 머리맡에 늘 붙여 두셨다는 이야기 등등.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과거의 사건, 누군가가 보낸 소포에서 시작된 위험천만한 여정

어느 새 수십 년간 학생으로, 다시 교수로 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두 한 가지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인다. 바로 옥스포드에는 예나 지금이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순환될 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대체 그 명망 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찾아내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카산드라는 마침내 고대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학교에서 그들만의 특권과, 살인의 흔적을 보고 만다. 학교 전체를 휩싸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힘, 그 어두운 세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그 힘을 막아 설 수 있는 사람도,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카산드라가 이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인지도 모른다.

<저자 소개>

앤 A. 맥도널드(Ann A. McDonald)는 잉글랜드 석세스에서 태어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경제를 공부했다. 이후 음악 기자, 엔터테인먼트 분야 평론가로 일하다가 현재 미국에서 소설가, 극작가로 활동 중이다. 필명으로 발표한 여러 소설들이 <USA 투데이> 등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다.

제목 : PREPARATION FOR THE NEXT LIFE

가제 : 다음 생을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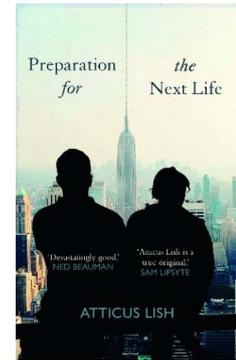
저자 : Atticus Lish

출판사: Oneworld Publications

발행일: 2015년 4월 2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2015년 펜/포크너 소설 부문 수상, New York City Book Award 소설 부문, 펜/헤밍웨이 소설부문
결선, 2014년 칼라 퍼스텐버그 코헨상 수상

2014년 <뉴욕타임즈>, <월 스트리트 저널>, <베니티 페어>, <퍼블리셔스 위클리>, <버즈피드> 에
서 최고의 소설에 오른 소설

산산이 부서진 아메리칸 드림과 그 속에서 찾은 힘겨운 사랑

위구르 족 출신 어머니와 한족 군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추 레이는 미국에 몰래 들어온 불법이민자로 살고 있다. 그녀는 퀸즈 구석에 자리한 중국 음식점에서 하루 열네 시간씩 노예처럼 일하고 일이 끝나면 시커멓게 때가 앉은 매트리스 위에 겨우 몸을 누이는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독특한 출생 이력 때문에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들도 추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청바지에 데님 재킷 하나 달랑 걸치고 맨몸으로 온 미국땅. 대여섯 명의 다른 중국 여성들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힘겹게 국경을 건너온 추는 지하철에서 DVD를 파는 일부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쪼들리는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만 하게 된다. 가난과 더불어, 언제 단속에 붙들려 강제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초조하고 불안한 생활도 그녀를 더 위축시킨다.

건장한 체격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커다란 문신까지, 겉모습만 보면 위풍당당하기만 한 스키너는 사실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에 우울증과 끝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 세 번이나 참전하고 돌아오니 그의 정신은 균형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뉴욕에서 다시 ‘운명 생활’을 시작해보리라 다짐했지만, 피트니스 잡지와 포르노, 피자가 주식인 생활, 내적 고통을 잊기 위한 술과 파티가 줄을 잇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로만 채워진다. 나라는 젊은 청년들에게 전쟁에 나서기를 독려하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친 군인들에게는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스키너는 그 지원이라는 것은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은 머나먼 전쟁터에서 그가 본 것들, 그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재현하며 그를 잠시도 놓아주지 않는다. 지독한 그의 트라우마는 술로도, 그 무엇으로도 떨쳐낼 수가 없다.

각자의 상황 때문에 한정된 환경에 갇혀 있던 추와 스키너, 두 사람은 어느 우중충한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손으로 만져질 만큼 생생하게 느껴진 서로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감지한 두 사람은 이 거친 도시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인이 된다.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두 남녀의 인연과 각자의 아픔, 사랑

둘의 만남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다. 스키너는 아주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론 나쁜 짓도 할 줄 아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때때로 추에게 심하게 굴기도 한다. 추는 그런 스키너를 보며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려한 뉴욕에서 한 점 먼지처럼 누구도 신경 쓰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소외된 두 사람은 서로와 함께한다면 어쩌면 둘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보통 미국인들처럼’ 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이 그저 뉴욕의 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추. 뉴욕은 다들 이상적인 도시라고들 하지만 이곳은 그녀와 스키너에게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낯설기만 하다. 과연 이 도시가 누리는 번영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추와 스키너의 앞에 쉽사리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며 둘의 관계는 계속 시험을 당하고, 각자가 지닌 기이한 면, 받아들이기 힘든 약점도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두 사람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뉴욕의 번두리에서 바라본 화려한 도시의 풍경, 뉴욕을 그저 낯선 사막처럼 느끼는 추와 스키너의 눈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와 한 때는 신화와도 같았던 그 성공의 꿈이 파괴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은 2015년 펜/포크너 상(PEN/Faulkner Prize), New York City Book Award, <파리 리뷰>의 ‘플림튼 소설 상(Plimpton Prize for Fiction)’을 수상했으며, 펜/헤밍웨이 소설부문 결선에 오르고 2014년 칼라 퍼스텐버그 코헨상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4년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최고의 소설로 꼽혔다.

Amazon Best Sellers Rank: #79,424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1124 in 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Thrillers & Suspense > Psychological Thrill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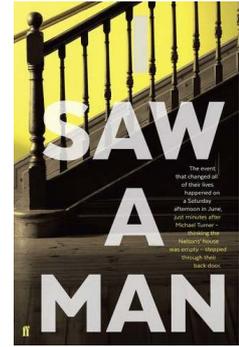
[#1131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Genre Fiction > War](#)

[#5644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Women's Fiction > Contemporary Women](#)

<저자 소개>

아티커스 리쉬(Atticus Lish)는 스티로폼 공장 노동자부터 퍼스널 트레이너, 이삿짐 센터 직원, 경호원, 패스트푸드 음식점 직원, 택시기사 등 온갖 직업을 거쳐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 후베이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다. 현재 중국어-영어 번역가로 일하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위 소설은 그의 데뷔작이며, 2012년에 그림과 캡션을 모은 책 『LIFE IS WITH PEOPLE』을 발표했다.

제목 : I SAW A MAN
가제 : 한 남자를 보았네
저자 : Owen Sheers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5년 5월 28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문학소설



"이 소설의 긴장감은 실제로 숨이 막혀올 정도다. 저자는 슬픔과 책임감, 죄책감과 구원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억과 슬픔에 대한 심오한 성찰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소설은 기쁨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특성을 잡아내고 있다." —옵저버

Film 4 영화 판권 옵션, 사랑과 인생을 잃은 아픔과 남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슬픔, 책임의 무게를 세밀하게 그려낸 소설

누군가의 집 뒷문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 곧이어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일, 이야기는 바로 그 날부터 시작된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기운을 잃을 만큼 폭폭 찢는 열기가 덮친 6월 런던의 어느 토요일 오후, 마이클 터너라는 이름의 남자는 분명히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 집에 들어섰다. 그가 들어간 집은 사실 이웃인 조시와 사만다 부부의 집이다. 마이클은 도둑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스토킨나 성폭행범도 아니었다. 그저 조시가 빌려간 드라이버를 찾아와야겠다는 아주 순수한 목적에서 부부의 집에 들른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분명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이 일은 이들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마이클에게는 아내 캐롤라인이 있었지만, 기자였던 아내는 파키스탄으로 위험한 취재를 갔다가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이클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없어 둘이 오붓하게 살던 웨일즈의 작은 집을 처분하고 런던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된다. 소설가인 마이클은 뉴욕에 사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큰 인기를 끈 덕분에 남들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해 보인다. 그가 꿈꾼 것은 런던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슬픔을 딛고 다시 책도 쓰고 상처 입은 인생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전부였다.

조시와 사만다는 새 이웃이 된 마이클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가 겪은 이별의 아픔을 알고 난 후로는 가족처럼 그를 챙겨주고, 저녁도 함께 먹고, 아침엔 조깅도 함께 했다. 예쁜 두 딸아이도 마이클을 잘 따라서 가끔 아이들 숙제를 마이클이 도와주기도 하고 낮에는 평범한 주부들처럼 사만다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다. 조시 부부의 삶은 언뜻 보기에 아주 평온하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육하는 기질이 다분한 조시는 일에만 빠져 사는 전형적인

일 중독자였고 사만다는 대체로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속에 엄청난 분노를 품고 사는 여자였다. 틈만 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술을 마셔대는 두 사람의 습관 속에서 각자가 눌러 놓은 괴로움이 묻어 나왔다.

전쟁터와 평화로운 집, 두 장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남은 자의 거짓말

마이클의 눈에 조시와 아만다 부부는 자신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얻지 못할 것만 같은 모든 것, 즉 부부간의 애정과 사랑스러운 아이들, 안정적인 생활, 가족이 함께 사는 집까지 다 갖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과의 우정은 크게 상처 입은 자신을 분명 치유해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부부의 집에 마이클이 들어선 그 순간, 그 집에선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다. 마이클에겐 슬픔과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만 남았다. 이제 마이클은 무엇을 해야 할까? 마이클의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그를 찾아온 미군 소령도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더욱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마이클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태가 그 미군과 관련이 있을까? 대체 그는 어떤 거짓말을 품고 살고 있을까? 그는 희생자일까, 가해자일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마이클에 대한 의문은 점점 깊어가고, 마이클이 ‘거울을 깨버린 남자’라는 제목으로 쓰던 소설을 모두 지워버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가 새로 쓰는 그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현재 일어난 사건과 마이클의 머릿속에 수시로 끼어들어 생각을 헤집는 옛 기억들, 마침내 시작된 경찰 조사와 수사 과정은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심리적 고통과 사랑, 우정, 삶 전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어떻게든 구원을 받고자 하는 한 남자의 힘겨운 싸움이 뉴욕 월 스트리트와 전쟁터, 출판 업계 등 다양한 곳을 넘나들며 고스란히 전해진다.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등 9개국에 판권이 계약되었고 Film 4에 영화 판권 계약을 마친 문학 소설이다.

<저자 소개>

오웬 쉬어스(Owen Sheers)는 스완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인, 소설가, 극작가로 활동 중이다. 첫 소설인 『Resistance』는 전 세계 10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영화로도 제작됐다. 비소설 『The Dust Diaries』는 ‘웨일즈 올해의 도서 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The Two Worlds of Charlie F >이라는 극으로 ‘Amnesty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ward’상을 수상하고, <Skirrid Hill>로는 ‘서머셋 몸 상’, <Pink Mist>라는 시로 시 부문 ‘헤이 페스티벌 메달’을 수여받고 Welsh Book of the Year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New York Public Library Cullman 의 펠로우로, Swansea 대학에서 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INTRUSION

가제 : 침입

저자 : Mary McCluskey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6년 3월 22일

분량 : -

장르 : 소설



아들을 잃고 고통과 슬픔만 가득하던 결혼생활, 그리고 부부의 앞에 나타난 반감지 않은 손님

영국에서 태어나 잡지사 기자로 런던에서 썩 만족스럽게 생활하던 캐트는 에디터의 요청으로 미국을 찾았다. 6주 동안 LA에 머물며 신인 영화감독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 캐트는 환한 태양이며 푸르른 산, 야자수, 거리 곳곳에 넘치는 에너지와 반짝이는 생명력을 느끼며 금세 LA를 좋아하게 됐지만, 그곳에서 남은 인생이 다 바뀔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번에 눈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다. 큰 키에 긴 머리카락, 짙고 푸른 눈동자에 따스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을 열심히 살펴보던 스캇. 캐트는 처음에 그가 배우인 줄 착각했다. 그만큼 외모가 훤칠했고, 옷도 깔끔하게 잘 차려 입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레 다가와 관광을 시켜주기로 한 스캇에게 이끌려 캐트는 다음 날 LA 곳곳을 둘러보고, 그가 법대에 재학 중이며 변호사를 꿈꾼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 하룻동안의 짧은 소풍 후, 캐트는 업무 일정마저 다 무시하고 다시 스캇과의 데이트를 선택할 만큼 그에게 빠져버렸다. 그녀의 인생이, 그리고 스캇의 삶이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든 건 그 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둘은 바로 이듬해 결혼을 했고, 결혼 1주년이 갓 지난 무렵 크리스토퍼가 태어났다. 아들을 품에 안고 함박 웃음을 짓던 스캇의 얼굴, 우렁차게 울어대던 크리스토퍼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캐트는 1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온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12주 전, 사고로 잃고 말았다. 그 날 이후부터는 끝없이 솟구치는 슬픔을 누르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다. 결혼 후 유능한 변호사로 성공한 스캇은 회사에서 큰 공을 세워 상까지 받을 정도로 인정 받고 있지만 그 강철 같은 겉모습의 이면엔 죽은 아이와 똑같은 이름만 들어도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오르고 마는 연약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 캐트에게 처음 서로에게 반했던 그 시절의 스캇과 자신의 모습이 모두 다른 사람의 일처럼 낯설게 느껴질 뿐이다.

위태로운 결혼, 달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나약해진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악한 파워게임

아이의 죽음은 어느 토요일 오전, 난데없이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으로 캐트에게 전해진다. 정원에 나가 있던 스캇이 놀라 뛰어들어올 만큼 비명을 질러대던 그 순간부터, 캐트의 삶은 산산히 부서졌다. 모든 절차가 정리되고, 스캇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캐트 역시 다시 직장에 복귀했지만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고 머릿속엔 혼란만 가득하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부부 앞에 반감지 않은 손님까지 등장한다. 캐티 영국에 살면서 알고 지냈던 새라 체링턴. 그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상하기도 힘든 막대한 재산에 뛰어난 미모까지 겸비한 새라는 무엇이건 자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면 다 가질 태세로 부부 앞에 나타났다.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새라의 등장, 그 뒤에는 철두철미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다. 새라가 나타난 후 캐트와 스캇의 결혼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새라는 그 둘을 상대로 사악한 게임을 시작한다. 외아들을 잃고 그렇지 않아도 인생 최대의 고비를 겪고 있는 부부를 향해 먹잇감에게 달려드는 맹수마냥 달려들어 파워 게임을 벌이는 여성. 대체 그녀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왜 그들 앞에 나타난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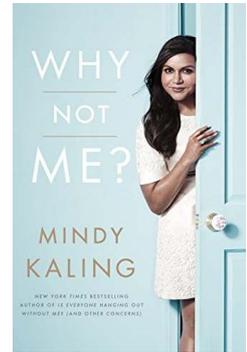
누구나 꿈꾸던 결혼생활에 관한 단상,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서 변해가는 남녀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리면서, 지독한 슬픔이 마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심리적 흐름을 날카롭게 집어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메리 맥클러스키(Mary McCluskey)는 「The Atlantic」, 「The London Magazine」, 「StoryQuarterly」, 「Salon.com」 등에 영국, 미국, 호주, 홍콩의 다양한 간행물과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하며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NON-FICTION

제목 : WHY NOT ME?
가제 : 왜 난 아닌데?
저자 : Mindy Kaling
출판사: Crown Archetype
발행일: 2015년 9월 1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유명 코미디언이자 배우, 방송 제작자, 각본가인 민디 케일링의 유쾌하고 발랄한 제 2의 성장기
2011년에 발표한 첫 저서 『IS EVERYONE HANGING OUT WITHOUT ME(나 빼고 다 놀러 간 거야?)』로 큰 호평을 받고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던 코미디언이자 배우 민디 케일링이 자신의 유쾌 발랄한 인생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두 번째 책으로 돌아왔다. 미국 드라마 <오피스>에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여직원으로,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까칠이’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배우로, 폭스 TV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코미디 드라마 <민디 프로젝트> 주인공으로 할리우드에서도 입지를 굳힌 저자는 이 책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 속 사건들과 경험을 털어놓으며 그녀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한다.

일하다가 사랑에 빠지고, 문득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디에서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행동 교정’ 없이도 성공적으로 살을 뺀 최초의 인물이 되고, 할리우드라는 치열한 환경에서 ‘넌 누구와도 달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며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이야기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신나게 지내려는 민디의 여정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엄청 멋진 모습이 되려면: 신인 여배우의 고백’ 편에서는 화면에 실패 없이 예쁘게 잡히려면 카메라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팁을 배울 수 있다. ‘선수’ 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어떤 여성에게 인간적으로 큰 매력을 느끼고 친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결국 내팽개쳐진 사연을 솔직하게 들려준다. 지금은 웬 어린 모델이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둘이 쿵짝이 잘 맞는 절친이 되었다는 씁쓸한 결말도 들을 수 있다. ‘비현실적인 여주인공’ 편에서는 미국에서 여배우의 체중에 대해 얼마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존재하는지 꼬집는다. 저자는 화면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빼만 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강마른 몸매거나 엄청나게 뚱뚱해서 움직일 때마다 가구나 부수는 딱 두 유형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인생과 일에서 큰 전환기를 겪은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고 재미 있게 전하면서, 성인이 되었지

만 또 다시 새로운 성장기를 겪으며 더 나은 어른이 되어가는 저자의 이야기는 공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분 좋은 자극이 된다. 현재 높은 아마존 순위를 자랑하며 톡톡 튀는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 **Amazon Best Sellers Rank: #7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 #1 in Books > Humor & Entertainment > Humor > **Love, Sex & Marriage**
 - #1 in Books > Humor & Entertainment > Humor > **Satire**
 - #1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United States > **Humor**
- Would you like to **give feedback on images** or **tell us about a lower price?**

<목차>

여성들을 위하여

- 엄청 멋진 모습이 되려면: 신인 여배우의 고백
- 결혼식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민디 켈링, 여학생 클럽의 그 애
- (사소한) 명성이 나를 바꾸다
- 내 파티에 가져와야 할 것들
- 선수

직업을 찾고 사랑하라

- 나만의 TV쇼를 만들기까지(그리고 불안감으로 죽기 직전까지 간 사연)
- 민디 라히리, 의학박사, 평범한 소녀, 살짝 소시오패스
- 그렉 다니엘스의 조언
- 난 섹스 장면이 좋아!
- 올 가을에는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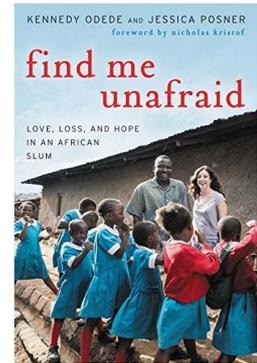
사랑, 연애, 세상을 가진(망친) 남자들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각들

<저자 소개>

민디 케일링의 본명은 Vera Mindy Chokaling로, 인디언계 미국인인 그녀는 코미디언, 배우, 각본가, 제작자로 일하고 있다. 에미상 수상작인 드라마 <오피스>의 24편의 에피소드 각본가로 활동하며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자신의 TV쇼 <민디 프로젝트>의 제작자이자 주연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호평을 얻고 있다. 첫 저서 『IS EVERYONE HANGING OUT WITHOUT ME(나 빼고 다 놀러 간 거야?)』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제목 : FIND ME UNAFRAID
가제 :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저자 : Kennedy Odede, Jessica Posner
출판사: Ecco
발행일: 2015년 10월 1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이 책은 몇 백명의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류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인 '희망'을 보여준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용기로 전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한 길을 터낸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의, 평화를 위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흔치 않은 이야기이다." — 노벨평화상 수상자 레마 보위

아프리카 케냐 최악의 슬럼 지역에서 만난 젊은 남녀, 그들이 만드는 사랑과 상실, 희망의 이야기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남녀가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만나, 가장 불가능해 보이던 변화를 만들어낸 꿈 같은 자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낸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나고 자란 케네디와 제시카, 케냐 최대 슬럼 지역인 키베라에서 희망의 씨앗이 된 두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다.

십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케네디는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기적을 경험했다. 머리부터 나와야 할 아기가 거꾸로 나오기도 다행히 죽지 않고 생존한 것이다. 하지만 기적도 잠시, 그 이후의 삶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극심한 가난과 양아버지의 그칠 줄 모르는 매질을 견디다 못해 겨우 열살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온 케네디는, 거리를 전전하며 구걸을 하고 도둑질이며 마약에 절어 살다가 한 백인 선교사와 만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거리 생활을 하면서도 버려진 신문 조각을 보며 혼자 글을 깨우치며 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케네디는 미국인 자원봉사자 덕분에 아프리카를 구원하기 위한 진행 중이던 작은 일들에 처음으로 손을 보태게 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삶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자신의 고향과 국가도 자기 손으로 바꿔놓으리라 결심한다.

케냐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덴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곱게 자란 제시카는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석사 과정을 밟던 중 학교가 지원하던 해외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2007년 처음으로 케냐 키베라를 찾았다. 그곳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싶어 지역민의 가정에서 지내기로 결심한 제시카가 머문 곳이 바로 케네디의 집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제시카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든 관습과 편견을 깨고 사랑에 빠진

다.

키베라 사람들이 다들 ‘시장’이라고 부를 만큼 젊은 리더가 된 케네디는 제시카의 도움으로 웨슬리언 대학교에 입학하여 늘 꿈꾸던 학업을 끝내고, 두 사람은 키베라 최초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 여학교를 짓는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학대를 받아 삶을 포기한 여자아이들을 위해 환한 푸른색으로 칠한 이 큼직한 학교는 암울하기만 하던 키베라에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의료보건 서비스를 비롯해 깨끗한 물, 경제적 자립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키베라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두 사람이 추진한 개혁 모델은 케냐에서 두 번째로 큰 슬럼 지역인 마테어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금씩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자 클린턴 부부, 미아 패로우 등 유명인사들과 지역민들도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은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목숨을 부지하는 일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지는 환경, 오갈 곳 없이 폭력과 질병, 가난에 몸을 맡긴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전혀 닮지 않은 두 사람이 문화적인 차이를 모두 뛰어 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희망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 두 젊은이가 빈곤과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 그 틀을 깨고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떨치는 과정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 책은, 현재 아마존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매체의 호평을 받고 있다.

Amazon Best Sellers Rank: #35,362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64 in Books > Politics & Social Sciences > Politics & Government > Specific Topics > Globalization

#561 in Books > Education & Teaching > Schools & Teaching > Education Theory

#1334 in Books > Biographies & Memoirs > Memoirs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총 2부, 1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케네디 오데드(Kennedy Odede)는 현재 아프리카 사회운동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 하나다.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소속 멤버이자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청년리더’로도 활동 중이다.

제시카 포스너(Jessica Posner)는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 2071
가제 : 2071년
저자 : Chris Rapley
출판사: John Murray Publishers Ltd
발행일: 2015년 6월 18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환경



"2071은 좋은 책 정도가 아니다. 꼭 필요한 책이다."— 가디언

"현 세기의 가장 시급한 주제를 읽기 쉽게 풀어놓은 책" — 타임즈

기후변화의 원인과 양상, 시급히 동참해야 할 해결 방안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밝힌 책

미국 국립 해양대기청 소속 환경정보센터는 지난 8월, 올해 7월이 전 세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밝혔다. 7월에 측정한 전 세계 평균 온도가 1880년 1월부터 시작된 관측 역사상 최고치인 16.61도를 기록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 뚜렷한 증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평균 기온은 1954년부터 45년 동안 10년마다 0.23도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이면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5.7도 오르고, 2070년에는 한반도 이남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책은, 2014년 로열 코트 극장(Royal Court)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1인극의 스크립트이자 솔한 관측치와 증거로 확인된 기후변화의 실체를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짧은 책이다. 기후변화는 어쩌다 시작되었고, 인간이 그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얹은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1950년대 후반, 열살 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읽던 소년은 남극 부분에 적혀 있던 '미지의 지역'이라는 문구를 유심히 보았다. 이 소년은 커서 영국 남극연구단의 대표가 되고, 50만년 전 형성된 두께 5미터 규모의 빙하 핵을 추출하는 광경도 직접 목격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우리는 손자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 그는 같은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를 그 의문의 중심으로 데려간다.

저자는 과학적인 사실과 기후 변화의 실태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간단명료하게, 전혀 감정적이지 않은 차분한 말투로 설명하고 지구 전체의 동적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원인을 짚어본다. 이 어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릴 UN 기후변화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고 역설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지구에 재앙과 같은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빙하가 점점 녹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하지만, 웬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질 뿐 그 시급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그러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힘이 필요한 해결 노력도 더더욱 수 밖에 없다. 이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이 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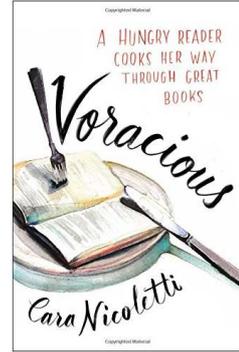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음.

<저자 소개>

크리스 레플리(Chris Rapley)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기후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인트 에드문드 컬리지, 임페리얼 컬리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NASA 연구소 소속 과학자로도 활동 중이다. 2008년에는 ‘에딘버러 과학 메달’을 수상하고 2003년에는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 받았다.

제목 : VORACIOUS
가제 : 탐독과 탐식
저자 : Cara Nicoletti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5년 8월 1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요리



"저자는 침이 고이게 할만한 유려한 에세이와 비평, 그리고 레시피를 담아내었다." —오프라 매거진

어린 시절부터 책 속 주인공과 요리에 푹 빠져 살던 소녀, 탐독과 탐식의 열정적인 삶 이야기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정육점에 앉아 독서에 푹 빠져 살던 소녀가 커서 정육 전문가이자 패스트리 전문가로, 음식 블로거로 활약하면서 동시에 책에 대한 열정도 잃지 않았다면? 그녀가 가장 잘하고 사랑하는 두 분야인 음식과 독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 속 등장인물들이 식사를 하고 신기한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 저자가 느낀 호기심과 아이디어, 이를 토대로 만들어낸 자신만의 레시피,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혼자 자립해서 사는 성인이 되기까지 탐독한 책과 탐식한 음식들, 직접 만들고 발명한 요리들이 모두 담겨 있다.

보스턴 외곽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저자는 어릴 때부터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불안함을 가라앉힐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가 찾은 답은 책.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금세 매혹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곤 했다. 그래서 늘 할아버지의 정육점 한 칸에 앉아 독서를 하면서 어여쁜 손녀를 위해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닭 간 파이 같은 음식들을 즐겨먹다 보니, 자연히 여느 아이들과는 입맛도, 생각도 남다른 소녀로 자랐다. 그 시절 열렬히 읽은 그림 형제의 요정 이야기, 빵으로 만든 집이 등장하는 헨델과 그레텔 이야기는 나중에 요리사가 된 저자가 실제로 독특한 케이크와 초콜릿을 개발하는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제인 오스틴의 '엠마'에서 처음 본 반숙 달걀 요리는 몸이 약한 저자의 아버지가 가장 즐겨 드시는 음식이 되고, 버터 넣은 초콜릿 칩 레시피를 만들다가 '취에게 쿠키를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기상천외한 생각도 떠올린다.

저자의 인생이 담긴 에세이이자 독자가 직접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한 레시피 모음집이기도 한 이 책에서는 음식과 책, 이 두 가지에 저자가 쏟아 넣은 열정이 그대로 전해진다. 모비딕에 나오는 '뉴잉글랜드 클램차우더'나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공을 걸들인 닭 간 크로스티니(짭짤한 토핑이 올라간 구운 빵), 최근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스릴러 영화 <나를 찾아줘>에 등장하는 브라운버터 크레페 등 저자가 책에서 영감을 얻어 만

든 50가지 독특한 레시피는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현재 아마존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에세이로, 음식과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흥미로운 책이다.

Amazon Best Sellers Rank: #5,882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9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History & Criticism > Books & Reading > General
#14 in Books > Cookbooks, Food & Wine > Cooking Education & Reference > Essays

<목차>

1부. 어린 시절

- <초원의 집>에서 아침에 먹던 소시지
- <헨델과 그레텔> 속 진저브레드 케이크와 블러드오렌지 시럽
- <부엌에 밤이 찾아오면>의 우유 케이크

(이하 생략)

2부.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 시절

- <앵무새 죽이기> 속 당밀버터가 곁들여진 비스킷
- <파리대왕> 속 돼지고기 구이
- <호밀밭의 파수꾼>의 맥아유 아이스크림
- <벨 자>의 아보카도와 계 요리

(이하 생략)

3부. 성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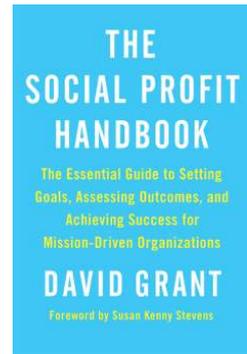
- <굿바이 투 올 댓>의 구운 복숭아와 홈메이드 리코타 치즈
- <바보들의 결혼> 속 젤리 도넛
- <더 도그 스타>의 통째 구운 송어
- <디 아워스>의 생일 케이크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카라 니콜라티(Cara Nicoletti)는 정육점 'Meat Hook'에서 일하며 '브룩클린 키친'에서 소시지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문학작품 속 레시피를 소개하는 블로그 'Yummy Books'도 운영 중이다.

제목 : THE SOCIAL PROFIT HANDBOOK
가제 : 사회적 이익 핸드북
저자 : David Grant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5년 3월 16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경영



사회적 이익을 목표로 삼는 비영리단체, 기관의 현실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 방법을 제시한 지침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와 기업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금전적 이득으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와 기업은 성과를 어떤 척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 기관의 주된 목표가 사람들, 어떤 장소, 그리고 지구의 건강과 안녕이라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사회적 이익이 필요한 곳, 필요한 상황에서도 전 세계는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이익이야 정부에게 믿고 맡겨야 할 일이라고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실제 공공 정책으로 실천하는 도시들은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의 정부는 별로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저자는 '제 3의 영역'으로도 불리는 사회적 단체와 기업이 비록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늘 자금 부족에 시달리지만, 이들이 하는 노력은 사회 다른 분야와 유권자, 소비자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와 기업들이 추구하는 사회 변화의 규모에 비해, 각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새로운 접근방식도 충분히 채택하지 않으려 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저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단체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든 자체적인 사업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든 실질적인 결과를 얻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하나하나 소개한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학교와 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단체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외부인이나 외부 단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비영리기관부터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까지, 조직 문화와 이들이 일차적으로 추구하려는 사업 목표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변화와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한 실험적인 전략이 함께 제시된다. 금전적 이윤이 아닌 '사회적 임무'의 실천이 최고의 목표인 기관과 업체들이 단순히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평가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영리 기업들처럼 미래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1. 독자들에게
2. 사회적 이익을 측정할 수 있을까?
3. 평가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
4. 미션 타임
5. 지시문의 힘
6. 지시문 설계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
7. 성과를 높여주는 지시문
8.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지시문
9.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문
10. 생각,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저자 소개>

데이빗 그랜트(David Grant)는 '제랄딘 R. 도지 재단(Geraldine R. Dodge Foundation)'의 전전 대표이자 CEO로, 현재 사회적, 교육적 미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조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버몬트 주에 아내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 'The Mountain School of Milton Academy'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교육과 학습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제목 : MANAGING THE UNEXPECTED
가제 : 예측불가의 상황도 관리하라
저자 : Karl E. Weick, Kathleen M. Sutcliffe
출판사: Jossey-Bass
발행일: 2015년 9월 15일(제 3판)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경영



예측할 수 없는 위기도 피하고 관리할 줄 아는 능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만드는 방법

홍수, 허리케인, 테러리스트의 공격, 은행의 도산, 경기불황,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재앙까지, 기업들은 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앞에서 큰 영향을 받고 흔들린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기업들과 달리 예고 없는 변화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 자연재해든 지역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황이든, 혹은 국제적인 갈등이나 경제적 변동 등을 겪어도 금세 적응하고 생존하는 기업들, 그 비결은 무엇일까? 2001년 처음 출간된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도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서로 자리 잡은 이 책은 세부적인 개정을 거쳐 제 3판으로 다시 출간됐다. 두 저자는 처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 지적 재산의 붕괴, 품질의 실패, 은행의 도산 등 최근 들어 기업들이 직면한 독특한 상황들, 특히 기업이 자초하여 발생한 불행한 사태에 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업적인 항공 산업, 응급실 시스템, 항공모함 운항, 소방서의 화재진압 시스템 등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큰 신뢰를 주는 것이 특징인 일명 ‘고신뢰조직’은 현재 한 조직과 기관의 대비 수준을 크게 높여줄 모델로 각광 받고 있다. 두 저자는 이 고신뢰조직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어떤 조직들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 방식과 학습 양식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은행, 박물관 큐레이팅, 지문인식, 항공기 운행,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고신뢰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필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조직체를 지탱하는 기본 특성과 원리를 정리한다. 또한 두 저자는 앞서 1판, 2판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크게 확장하여 ‘실패, 간소화, 운영, 회복력, 전문성’으로 이루어진 고신뢰 조직의 다섯 가지 기본 원리에 담긴 복잡한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기본 원리와 함께 반드시 함께 확고한 실천 의지와 자신감이 동반되어야 실제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고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개정판에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성공을 거둔 광범위한 사례들이 함께 제시되며, 어떤 조직이든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각종 예측 불가의 사고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기업이 현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예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경영서로서 3판인 이 책은 출간

이후 아마존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

Amazon Best Sellers Rank: #37,847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196 in [Books](#) > [Business & Money](#) > [Skills](#) > **Decision Making**

#218 in [Books](#) > [Business & Money](#) > [Management & Leadership](#) > **Decision-Making & Problem Solving**

#741 in [Books](#) > [Business & Money](#) > [Management & Leadership](#) > **Management**

<목차>

- 1장. 예측할 수 없는 일, 잘못된 관리
- 2장. 주의 깊은 조직을 이루는 기반시설
- 3장. 원칙 1 - 실패에 몰입하라
- 4장. 원칙 2 - 간소함을 멀리하라
- 5장. 원칙 3 - 운영절차의 세심한 관리
- 6장. 원칙 4 -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헌신
- 7장. 원칙 5 - 전문적 지식에 대한 존중
- 8장. 조직 문화와 신뢰도
- 9장. 지속 가능한 성과가 계속 지속되려면

<저자 소개>

칼 E. 와이익(Karl E. Weick)은 미시건 대학교에서 조직행동과 심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캐슬린 M. 섯클리프(Kathleen M. Sutcliffe)는 미시건 대학교 산업행정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의학을 가르치고 있다.